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58. 언약궤를 보여주신 뜻

2014. 02. 09.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이 살아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한 상징적 사건이 성경 폐지령이 철폐되고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인쇄하게 되며 성서공회가 조직이 되어서 온 세상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처져나가게 된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언약궤를 보여준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루시퍼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인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법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확실합니까? 하늘에도 그런 십계명이 있는지요?

답: 하늘에 돌비에 새긴 십계명 돌비가 있는지 모르지만, 십계명에 기록된 조문과 같은 그런 십계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면 십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도덕법이나 종교의 성질을 규정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을 보여준 생명법입니다. 사도행전 7:38을 읽어봅시다.

[행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생명의 도”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도”라고 번역한 말이 “로기온”입니다. 즉 생명의 로기온을 받아 준 것입니다. 로기온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지요. 십계명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구약성경의 말은 “열 마디 말씀”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차와”인데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말은 “에셀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거든요. 스테반은 이것을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궤도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생명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고 결과는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명령이라고 했지요.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8을 읽으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은 창2:16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하신 말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과실을 먹었을 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후에 창3:17에서도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항상 명령한 이라는 “차와”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에는 3:17에 “명한”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말한 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명령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6,17, 3:11,17에 다 명령한 이라는 말 “차와”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다른 과실들을 먹으라는 것도 명령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2. 목사님, 하늘에 십계명의 내용과 같은 그런 문자로 기록된 십계명 돌비는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애청자들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답: 예,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복잡합니까?(복잡한 것은 아닌데,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요.) 예,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루시퍼가 정죄된 죄목이 교만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참고 들어보세요. 제가 십계명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생명의 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으로 하신 먹어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계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주신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계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 생명관리를 바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도덕법이기 전에 생명의 법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법이 생명의 도라고 설파했지요.

3. 예,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생명의 도, 즉 생명관리 법이라는 말씀이군요?(그렇지요.) 그런데 루시퍼가 그 생명관리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루시퍼가 생명관리 법을 거절했으니 당연히 사망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좇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씀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도덕법으로만 이해하면 생명의 도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도라는 것을 이해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그 궤도가 도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도덕이나 부도덕이나 다 생명이 있어야 드러내는 생활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첫째로 주신 것은 생명과 존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피조물이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한 죄입니다. 죄는 곧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형언도를 받게 된 상태가 죄라는 말입니다. 생명관리법을 따르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4.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죄는 곧 불법이라고 한 요일3:4의 불법한 법은 곧 생명관리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범한 것보다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생명관리법을 어긴 것이 되겠네요?

답: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적해주셨네요. 어떤 저술가는 성경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범한 것이 죄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생명의 도리를 깨달으면, 태초에 생명을 잘 관리 유지하라고 주신 명령, 곧 먹어라 먹지 말라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관리 계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일로 생명관리법을 어겨서 사망이 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도리를 깨달지 못하면 문자로 기록한 조문에 얽매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에 대한 복음의 도리를 놓치고 성경을 도덕적 규범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그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줄 착각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반역한 루시퍼가 이런 사상을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11:19에 성소 휘장을 열고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은 10:6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도리를 깨달아 그 생명의 궤도대로 운행할 때 진정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 심판이 이르는데 그것은 생명과 존재를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에 동원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인데,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알 수 없지요. 이것들은 16장에서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이 지상으로 쏟아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언약궤를 보여주는 장면이 심판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계16:17~21]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 말씀을 보니 11:19에 언약궤와 함께 보여준 기록들이 그래도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재앙은 생명의 법을 버림으로 존재와 생명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때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은 엄청 두려운 일이지요.

5. 그런데 목사님, 선악과를 먹을 때 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과실에 생명을 빼앗는 어떤 기능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답: 참 좋은 질문입니다만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만일 그 과실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과실을 먹었을 때 당장 존재와 생명을 잃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장 생명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요. 성경을 살피면 마귀가 여자를 꺾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수단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생명을 떠나는 수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고후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했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사단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것이지요. 창세로부터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존재와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떠나면 사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곧 생명의 법을 범한 것입니다.

6.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군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께서 어린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호소하는데, 햇불처럼 타는 밝은 별처럼 세상에 떨어진 루시퍼가 강과 샘물을 썩이 되게 하여 이 생명의 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이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바로 언약궤를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비가 들어 있지요. 그것은 결코 한 글자도 변경되거나 폐해질 수 없지요. 그런데 그 햇불처럼 내려온 존재가 그 내용을 교묘하게 변경했지요. 계명을 고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관리법을 변경한 것이지요.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상징으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연구할 때 생명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도리를 깨달은 존재가 12장에 나타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 표상됩니다. 그러나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생명의 도, 곧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생명과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라는 도구들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부디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자로 읽지 않고 영으로 성경을 읽는 길이지요.

7.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도리대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12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답: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계12:1~3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계12:1,2]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올바르게 누리는 하나님의 참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선 여자의 차림새를 찬찬히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는 것은 여기 보이는 장면이 땅에 있는 장면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늘의 장면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인다고 했으니 12장에 기록된 장면과 사건은 모두 하늘에서 있었던 것을 기점으로 하여 사건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 언약궤를 보여주신 장면도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었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의 근거도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시록은 입체적 계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 12장은 4각 기둥의 네 번째 면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사건들, 교회, 인, 나팔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보여주신 계시의 장면입니다.

8.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고 한 말씀이 11:19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생명의 도리를 걷는 사람들과 용이 그들을 어떻게 못살게 핍박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다 하늘에서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이군요. 여자의 차림새는 참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입니다.

답: 그렇지요. 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내외가 벌거벗었으나 벗은 줄 모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한 사실에서 해를 입었다는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는 빛이지요. 빛은 생명입니다. 아담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았습시다. 그 생명력이 빛으로 드러났습시다. 그래서 아담 내외는 마치 빛을 입은 것 같았기 때문에 벗은 알몸이 보이지 않았습시다. 시8:5에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웠다고 했는데, 그것은 빛을 옷처럼 입혔다는 뜻입니다. 요1:4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것은 예수님을 입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생명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했지요.(말4:2)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약교회를 표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으로는 예수님을 옷 입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빛의 옷을 입은 생명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왜 교회냐 하면 성경에서 예언에 나타나는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교회 시대에 이세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교회를 표상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기억이 없네요. 계시록에 여자가 셋이 나오는데, 이세벨, 해를 옷 입은 여자와 17장에 화려하게 치장한 음녀입니다. 이것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볼까요?

[고후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엡5:28~32]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

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 이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들은 여자가 교회를 표상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성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진리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자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계1:20절은 별을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에 별이 12개가 달렸습니다. 12은 선택수라는 것을 144000인에 대하여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진리교회로 선택된 그 교회를 지도하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승리의 면류관인데 루시퍼의 다양한 공격에 승리한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선택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옷 입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표상되는데 21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거기도 12보석으로 된 기초 석과 진주 한 개로 된 12성문이 있습니다. 선택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인데 승리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께서 친히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9.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명료합니다. 그런데 발 밑에는 달이 있다고 했으니 달을 밟고 서 있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이 표상도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10장을 찾아봅시다.

[롬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표상합니다. 로마서의 이 말은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같은 말씀이 있지요. 사52:7절입니다.

[사52:7]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교회는 참된 진리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달은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시89:37]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천체이지요. 달빛은 사실 햇빛입니다. 것처럼 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일 곧 이 세상에 참된 진리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해를 입고 발 밑에 달이 있고 열 두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이렇게 참된 진리를 증거하

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순결하고 아름다운 진리교회를 상징합니다.

10. 참 아름다운 표상이네요. 눈앞에 한 폭의 아름다운 미인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그렇지요. 최고의 미인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었다고 했고 해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 예, 5절을 보면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원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3:15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이런 희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순결한 복음교회가 아이를 배어 아프다고 한 것을 일반적으로 구주가 순결한 교회를 통하여 오신다고 해석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한 교회를 뜻한다고 하지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순결한 교회를 통하여 구주가 온다는 사실을 동의하면서도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하겠네요.

11. 시간이 되었군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시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성전을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적인 성질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입은 참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진리의 참된 증인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사람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